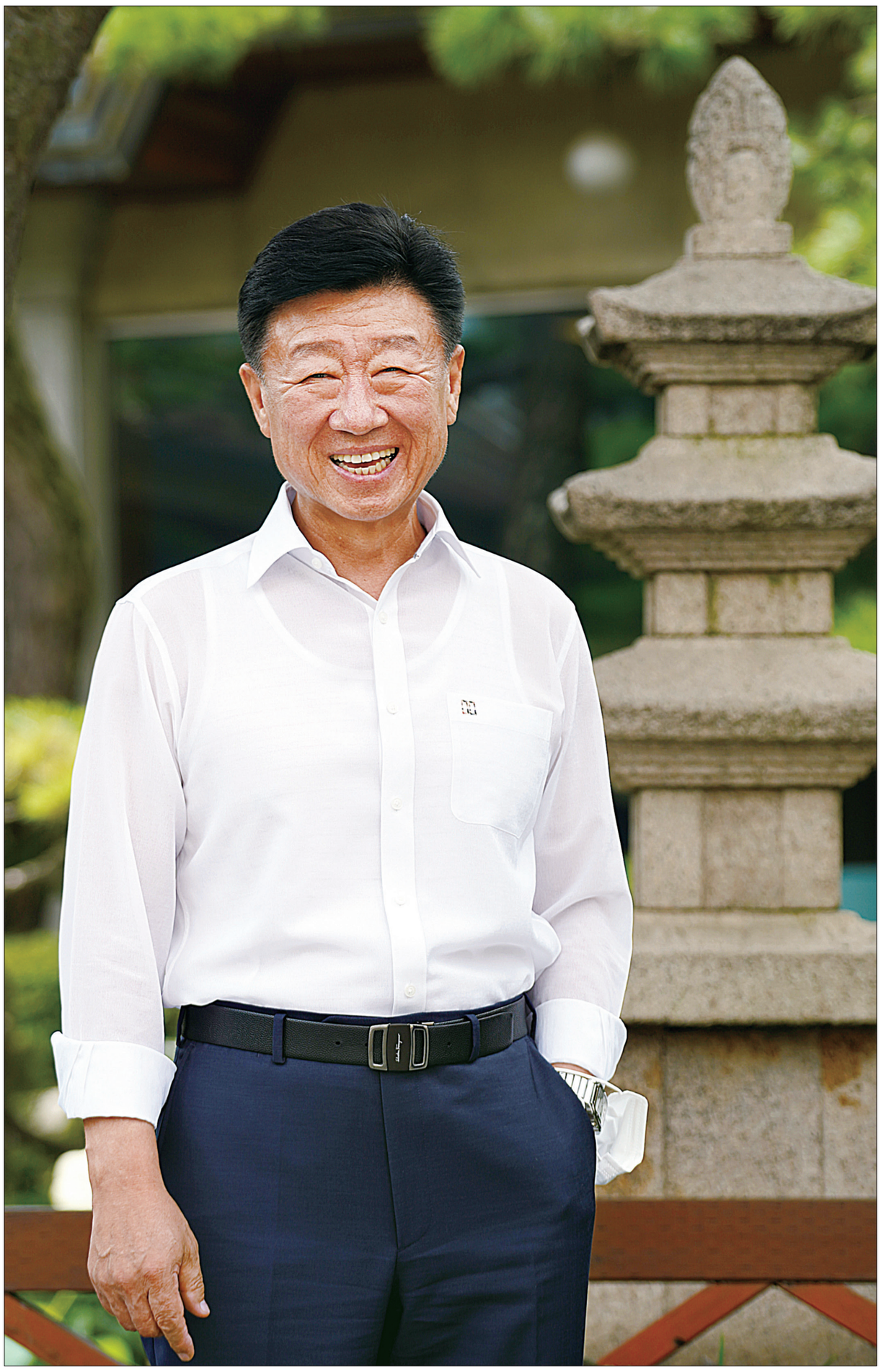
“몸 녹초되어도 관세음보살 외치면 웃음 절로”

Interview

고 대 영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 대표
(숭의가든 대표)

대담=김주일 국장/정리 · 사진=노덕현 기자



8월 10일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고대영 대표는 사진으로 봤을 때와 사뭇 달랐다. 고 대표를 처음보면 입체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죠, 머”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에게서 삶의 풍파를 겪은 만큼 능수능란하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원숙함이 읽힌다.

인천불교의 살림꾼, 대소사 맡아

7월 19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숭의가든’에는 인천불교를 이끄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년간 인천불교를 이끌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인천지역은 한국불교에서 이른바 아픈 손가락으로 불린다. 개화기 기독교계가 선교활동을 가장 빠르게 펼친 곳이기도 하려니와 사찰이 많지 않은 도서지역이 있어 불교세가 가장 약하다. 여기에 불교 내적으로는 다양한 종단이 섞여 있어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끌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래전 종단간 갈등으로 양분사태를 겪기도 했던 만큼 매번 총연합회장 선출은 외줄타기와 같은 심정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이날 32대 총연합회 회장 선출은 태고종 인천종무원장 능해 스님을 추대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이뤄졌다.

어째서일까. 박수 속에서 선출된 능해 스님을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본 인물. 스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인천불교의 살림꾼 고대영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 대표(숭의가든 대표 · 66)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인천지역은 불교세가 극도로 약한 지역이다. 4000여 교회에 비해 250여 사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을 비롯한 군소종단까지 다양한 종단이 활동하고 있다. 약한 교세로 각 사찰의 신도 수도 여타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런 지역불교 상황에서 불교활동가들 모임인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의 존재는 든든한 외호를 맡고 있다.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은 2018년 출범 이후 나눔과 복지활동, 명상강좌 등 전법포교 뿐만 아니라 지역내 종교편향, 환경 등 사회문제까지 아우르는 연대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오랜 지역 토박이로 지역경제계 뿐만 아니라 정관계까지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고대영 대표의 역할이 컸다.

백화점 여러 곳에 매장을 낼 만큼 국내 유명한 요식업체인 ‘숭의가든’을 이끄는 대표임에도 대화하는 시간 대부분이 불교에 대한 노력, 인천불교 발전에 대한 부담과 각오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됐다.

간절한 마음, 불심으로 싹트다

고 대표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동생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고 대표의 부모님은 북한 황해도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강화 교동도로 피난을 와 고 대표를 낳았다. 먹을 것조차 부족했던 그 시절, 고 대표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사랑하던 여동생이 결핵을 앓으면서다.

“여동생이 둘 있었어요. 여섯 살이던 막내여동생이 결핵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후 바로 아래 여동생이 결핵을 앓았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이었어요. 막내 여동생은 저도 어려서 뭘 몰랐고, 남은 여동생을 살리고 싶은데 어린 촌놈이 아는게 있어야죠. 그래서 병문안을 온 어른들이 기도라도 많이 하라고 말해준 관음보살 칭명염불이 불교를 알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고 대표는 당시 불교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저 여동생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관세음보살을 염호했다. 달리 의지할 데도 없었다. 그만큼 간절했지만, 수개월 후 둘째 여동생도 세상을 떠났다.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인 만큼 불교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마음의 의지처가 없어진 고 대표의 학창시절은 질풍노도의 방황기였다.

고 대표는 “절망과 분노만 남은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도 포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께는 여동생 하나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라고 원망만 했죠”라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꿈에 동생의 눈코입으로 흙과 빗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강화 교동도에는 찾아갈만한 절이나 스님이 없었다. 삶의 혼돈에 대해, 인간의 생사고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도와 염불은 자연스럽게 화두로 이어졌다. ‘내 동생이 간 곳은 어디며, 아프고 죽는건 무엇일까?’ 였다.

학창시절 관음기도로 마음 의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도 고 대표는 관음기도만은 매일 빼먹지 않았다. 이런 기도의 가피는 군입대 후 자대배치에서 발현된다. ‘보안부대’에 가고 싶었던 고 대표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동안에도 마음 속으로는 염호를 했다. 취침시간 때에도 교관들한테 사정하여 복도 한 귀퉁이에서 1시간씩 기도를 올릴 정도였다. 그 때문일까. 실제로 자대배치 받기 10일 전 보안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은 용인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인천으로 배치 받고 싶어서 다시 또 기도를 했죠. 내무반에서 기도하면 고참들 눈에 띄고 하니 연병장 한가운데 앉아서 기도를 매일 1시간씩 했는데, 3개월 만에 인천으로 다시 재배치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도의 힘이란 무엇인가, 이런 원리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오묘한 세계에 대한 의문과 갈증은 불교공부에 더 매진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날때면 수많은 사찰과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문답을 가졌지만 불행하게도 원론적인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다.

제대 후 25세 때 고 대표는 부천에서 스프링을 제조하는 원강기업을 창업했다. 공장일로 바쁘던 1990년 고 대표는 BBS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던 ‘고승열전’을 접하며 기도 뿐만 아니라 수행이라는게 무엇인지, 실천이라는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다. 불심은 깊어졌지만, 대외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젊은 패기로 시작했지만 경험이 부족한 터라 사업체가 점점 기울었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야 말았다.

불교계 약한 인천지역서 외호
불자리더 모아 시민연합 구성
총연합회 등 지역 민원 해결사

어릴적부터 놀던 인천 연안부두가를 거닐다가 회센터에 서울서 온 손님들이 벗어놓은 구두들을 보았다. “사업을 하든 구두를 닦든 귀천이 있습니까.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닦았는데 장인어른을 비롯한 지인들은 창피해 하셨어요. 그래도 밤마다 기도를 하며 다잡은 마음이 있으니 독하게 했죠.”

조금 상황이 나아지나 싶더니 얼마안돼 주변 경쟁업자들이 구청에 고발장을 넣어서 쫓겨났다. 스물 여섯살 나이로 안양까지 흘러온 고 대표는



중 1때 여동생 간호하며 발심
사업실패를 불심으로 극복해
불자 역량 발휘에 ‘공심’ 강조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모아 안양에서 최초로 극장식 스탠드바를 열었지만 성업은 잠시, 민정당 반대시위 여파로 건물이 불에 타며 이 또한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이듬해 친구의 도움으로 미국 헬스용품 업체 하청회사도 차렸지만, 본사가 도산이 나며 부도 처리됐다.

“인생이 절망적이었어요. 나이는 젊었지만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당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또 문 닫았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 8시면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공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찰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시 기운을 차린 고 대표는 스물아홉 나이로 자동차 중고 매매를 시작했고, 5년간 열심히 일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의 ‘숭의가든’을 1991년 창업했다.

고 대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크게 가니까 마음고생이 그만큼 컸다”며 “그러나 마음고생이 큰 만큼 수행이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숭의가든을 운영하며 IMF를 겪고, 리먼사태도 겪었다. 광우병 사태에 메르스,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역경이 계속됐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당 경영을 꼼꼼히 하고 손님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챙겼다. 조리되는 밑반찬 하나 하나 점검하고 소홀함이 없게 했다.

“모든게 부처님 법 하나에 의지를 할 수 밖에 없었죠. 거기에 의지하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야죠. 주차장에서 주차일을 하면서 땀이 줄줄나고 몸이 녹초가 되어도 마음 속으로 관세음보살합니다. 그리고 나면 웃는 얼굴로 ‘어서 오세요’란 말이 저절로 나와요.”

포행 중 마음 실체 엿본뒤 수행 공간 열어

2016년 고 대표는 새벽에 월미도 월미공원에서 포행을 하던 중에 불심의 근간이 된 그 간절한 마음의 실체를 맛보게 됐다.

“평생 끄달린 걸 그제야 보게 된거죠. 눈 가진 사람이 자기 눈을 보겠다고 한거였죠. 인과에 따른 것인데 그제서야 직시하게 됐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서 일까. 불교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솟아났다. 고 대표는 그 해 숭의가든 인근 건물에 스터디와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사띠’ 스터디를 구성했다. 지도법사로는 현재 인도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을 모셨다.

인천에서는 불교 공부를 하는 모임이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매월 1회 씩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고, 매주 월요일 스터디가 진행됐다. 현재는 붓다팔라 스님이 인도 분황사 업무로 자주오지 못하지만 내년쯤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마음수행의 대가인 김홍근 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강의를 매달 진행하고 있으며, 화요일이면 일반인을 위한 명리학 강좌도 진행된다.

불심 깊은 실업인이 있다는 소식에 인근 사찰 스님들과의 인연도 쌓여만 갔다. 강화 전등사나 약사사 등 지역사찰과의 다양한 인연이 생겼다. 지역 정관계와도 인연을 쌓은 고 대표는 자연스럽게 사찰과 스님들의 민원처리도 돕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무원불자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9년 숭의가든과 사무실이 있는 미추홀구부터 고 대표는 공무원불자회 구성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현실은 충격이었다. 불교세가 너무 약하다보니 불자 공무원들이 차별받을까 불자회 구성을 만류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전법 포교는 더욱 요원하다는 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시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희재 동아일보 취재본부장 등 친분이 있는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지역에서 역량있는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으고 싶다는 열망에서였어요. 다행히 뜻이 모여 약 100여 명의 인천지역 불자들을 규합해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을 꾸리게 됐습니다.” 교세가 약한 인천지역에서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량을 모으는 단체가 생겼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있다.

인천불교 화합에 보람, 새 중흥 꿈꾸다

고 대표는 그동안의 활동 중 가장 보람 있던 일로 2010년 인천불교총연합회가 통합된 것을 꼽았다. “분열됐을 당시에는 인천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거의 못받았습니다. 이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쪽에서 눈치주고, 저쪽에서 사업 진행하면 이쪽에서 눈치주고, 될 일도 안되는 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아에 불교를 우습게 알았죠. 점점 불교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게 느껴졌습니다.”

조계종과 타종단 사이에서 자유로운 고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을 오가는 이른바 ‘거간꾼’ 역할을 자임했다. 각 종단 스님들 간의 입장이 달랐기에 사정에 맞는 설득 과정은 인내심을 필요로 했다. 또한 양 연합회의 독자운영 과정에서 쌓인 부채 해결에도 고 대표는 공심을 갖고 지역불교를 위해 희사했다.

이러한 고 대표의 중심고리 역할로, 이후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선출 등 인천지역 불교계 대소사 논의나 사찰의 당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연대가 생겨났다. 지금은 휴간중인 인천불교신문 창간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모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있기에 그만큼 역량도 결집되지만, 사람이 모인 만큼 잡음도 나오기 마련. 특히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활용가치가 높아질수록, 이를 사유화하거나 개인의 영달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기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다시 모임은 깨진다.

통합 후 10여년이 흘렀지만, 고 대표는 아직도 통합의 초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종단 배분 등의 원칙을 지키며 원만 화합하는 것이 바탕이 될 때 지역불심도 살아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각 지역에 보면 역량이 있는 재가불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한데 모여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모임의 중심이 ‘공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 대표는 앞으로도 인천불교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원력을 갖고 있다.

“못났던 놈이 ‘불교’라는 걸 만나서 이렇게까지 성찰이라는 것도 하고 살게 됐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돕는 역할을 하며 인천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